

# 陳士鐸의 心包論 研究

## - 『外經微言』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1</sup>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2</sup>  
원광대학교 진주한방병원 침구과<sup>3</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4</sup>  
김정철<sup>1</sup> · 조은희<sup>1, 3 \*</sup> · 금경수<sup>1, 2, 4</sup>

### A Study on Jinsatak(陳士鐸)'s theory of Simpo(心包)

Kim Jeong-chul<sup>1</sup> · Zo Eun-hee<sup>1, 3 \*</sup> · Bang Jung-kyun<sup>1, 2, 4</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Dept. of Acupuncture,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Jeonju Hospital

<sup>4</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impo(心包, Pericardium) was described early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But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s about this organ.

Jinsatak(陳士鐸) is one of famous doctors in Cheong(淸) dynasty. He suggested a creative Oriental medical theory and he did a profound research on Simpo(心包). 『Oegyongmieon(外經微言)』 is one of his books recording his oriental medical theory in detail so it is the good documentary record for observing his theory of the Simpo(心包).

So we looked into his theory of Simpo(心包) in 『Oegyongmieon(外經微言)』 and also referred to his other books.

You might be able to get a viewpoint of utilizing Simpo(心包) in several ways through reading this paper.

**Key Words** : Jinsatak(陳士鐸), Simpo(心包), Oegyongmieon(外經微言)

## I. 序論

心包는 三焦, 命門등과 함께 한의학사에서 논란이

많은 臟腑이다. 그러나 일찍이 《內經》에서는 臣使之官<sup>1)</sup>이라고 하여 心包의 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心臟의 外部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12경락의 하나<sup>2)</sup>로 생리적, 病理的으로 역할과 기능이 있는 臟腑

\* 교신저자 : 금경수.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E-mail: kskeum@wku.ac.kr Tel: 063-850-6847.

Fax:063-842-4328.

접수일(2010년 2월 19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昚教授華甲紀念 素問研究集成 권1. 대구.金星印刷社.2001. p.297.

2)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昚教授停年退任紀念 靈樞研究集成 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p.346~350.

로 인식되어 왔다.

陳士鐸은 浙江省 山陰縣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사람이며, 명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청나라 초기를 살았던 醫家이다. 그의 자는 敬之이고 호는 遠公, 朱華子, 蓮公, 大雅堂主人 등이 있으며, 20여권의 저서를 남겼으나 현존하는 醫書는 8종이 있다.<sup>3)</sup> 그중에서 《外經微言》은 8종 의서중의 하나로 《黃帝內經》처럼 岐伯과 여러 사람들이 韓醫學의 제반 분야에 대한 이론들을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外經微言》에는 陰陽論, 五行論, 養生學, 發生學, 經絡學, 臟腑論, 生理學, 病理學, 診斷學, 運氣論, 傷寒論, 治法論 등 韓醫學 전반에 대한 陳士鐸의 이론이 실려 있어 그의 醫學이론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陳士鐸은 평소 《黃帝內經》과 《難經》, 《傷寒論》을 중시하였고 辨證에 능하였으며, 그의 저서들에는 기존 韓醫學 이론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주장한 논설이 많다.<sup>4)</sup> 心包에 대해서도 《內經》과 기존 의가들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를 많이 주장하였고, 臨床에서도 心包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에 저자는 《外經微言》을 중심으로 陳士鐸의 心包論을 考察하여 心包的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본 논문은 1999년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劉長華를 주편으로 하여 陳士鐸의 저서들을 모아서 연구, 간행한 《陳士鐸醫學全書》에 수록된 《外經微言》을 저본으로 하였고, 2004년 주민출판사에서 한의사 노영균 원장이 《外經》이라는 제목으로 국역 출판한 책을 참고하였다.

2. 《外經微言》은 총9권, 8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心包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편은 [包絡配腑篇]과 [包絡火篇]이 있고, 12경락을 논한 [考訂經脈篇]과 六臟七腑說<sup>5)</sup>을 논한 [臟腑闡微論]에서 부

분적으로 心包를 다루었다. 이에 각 편들의 원문을 懸吐國譯하고 경우에 따라 【字句解】와 【譯註】를 붙였다.

3. 陳士鐸의 다른 저서인 《石室秘錄》과 《辨證奇聞》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심포의 변증과 임상적인 활용례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4. 《黃帝內經素問》과 《靈樞》의 原文에 대한 내용연구와 각 註釋들의 비교 연구는 주로 《庸齋朴旻教授華甲紀念素問研究集成》(이하 '素問研究集成'으로 간칭함.)와 《庸齋朴旻教授退任紀念 靈樞研究集成》(이하 '靈樞研究集成'으로 간칭함.)를 참고하고, 其他 《內經》 관련 註釋과 연구서들을 참조하였다.

## III. 本論

### 1. 『包絡<1>配腑篇』에 나타난 陳士鐸의 心包論

본편에서는 먼저 心包를 臟이 아닌 腑에 배속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心包와 三焦가 表裏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를 논하였다. 前篇인 『臟腑闡微論』 편에서 六臟七腑說을 주장하면서 心包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었고, 본편에서 본격적으로 心包的 臟腑배속과 생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原文】

天老問於岐伯曰 天有六氣야야 化生地之五行하고 地有五行야야 化生人之五臟하니 有五臟之陰即宜有五腑之陽矣라. 何以臟止五腑有七<2>也오

岐伯曰 心包絡은 腑也나 性屬陰이라 故與臟氣相同니 所以分配\*六腑也니라.

天老曰 心包絡即分配腑矣나 是心包絡即臟也라 何不名臟而必別\*之爲腑耶오

岐伯曰 心包絡은 非臟也일새니라

天老曰 非臟列於臟中<3>하니 毋乃\*不可乎잇가

岐伯曰 臟稱五不稱六은 是不以臟予包絡也오 腑稱六不稱七은 是不以腑名包絡也라.

天老曰 心包絡이 非臟非腑인덴 何以與三焦相合乎잇

3)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38.

4)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38.

5) 기존의 五臟六腑에 胞胎를 一臟으로 추가하고, 心包를 一腑로 추가해야 된다는 陳士鐸의 臟腑生理論이다.

가

岐伯曰 包絡與三焦爲表里니 二經皆有形無形<4>이라 五臟有形이라 與形相合하고 包絡無形이라 故與無形相合也니라

天老曰 三焦爲孤臟<5>이라하니 卽名爲臟이어늘 豈合於包絡乎잇가

岐伯曰 三焦雖亦稱臟이나 然孤而寡合하니 仍\*是腑非臟也라 舍包絡之氣면 實無可依니 天然配合이오 非勉強附會\*也니라

天老曰 善다

雷公曰 肺合大腸하고 心合小腸하고 肝合膽하고 脾合胃하고 腎合膀胱하니 此天合\*也라 三焦與心包絡相合은 恐\*非天合矣니라

岐伯曰 包絡非臟而與三焦合者는 包絡裡三焦表也라

雷公曰 三焦腑이어늘 何分表里乎잇가

岐伯曰 三焦之氣本與腎親하니 親腎不合腎者는 以腎有水氣也라 故不合腎而合於包絡耳니라

雷公曰 包絡之火氣出於腎이어늘 三焦取火於腎은 不勝\*取火於包絡乎어

岐伯曰 膀胱與腎爲表里니 則腎之火氣必親膀胱而疏三焦矣라 包絡은 得腎之火氣하야 自成其腑하야 代心宣化\*하니 雖腑나 猶臟也라 包絡無他腑之附\*하야 得三焦之依而更親하니 是以三焦樂爲表하고 包絡亦自安於里하야 孤者不孤<6>하니 自合者永合也라

雷公曰 善다

應龍問曰 包絡은 腑也오 三焦亦自成腑이어늘 何以爲包絡之使\*乎잇가

岐伯曰 包絡卽膻中也라 爲心膜隔하야 近於心宮하야 遮護\*君主<6>하니 其位最親하고 其權最重이라 故三焦奉命하야 不敢後也라

應龍曰 包絡代心宣化하니 宜各臟腑皆奉命이어늘 何獨使三焦乎잇가

岐伯曰 各腑皆有表里라 故不聽包絡之使나 惟三焦無臟爲表里라 故包絡可以使之니라

應龍曰 三焦何樂爲包絡使乎잇가

岐伯曰 包絡은 代心出治腑與臟하니 同\*三焦聽使於包絡은 猶聽使於心이라 故包絡爲里하고 三焦爲表하니 豈勉強附會哉리오

6) 三焦를 지칭한다.

應龍曰 善다

陳士鐸曰 包絡之合三焦은 非無因之合也니 包絡之使三焦는 因其合而使之也라 然合者仍合於心耳오 非包絡之司爲合也니라<7>

【字句解】

\*分配(분배); 分別相配. 나누어 배합함.

\*別(별); 나누다. 分別하다.

\*毋乃(무내); 추측이나 반문을 나타냄.

\*仍(잉); 곧. 乃(내)와 같다.

\*勉強附會(면강부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임. 牽強附會(견강부회)와 같다.

\*天然配合(천연배합); 자연스럽게 짝을 이룸.

\*天合(천합); 天然配合을 줄인말.

\*恐(공); 아마도, 의심컨대. (추측을 나타냄)

\*不勝(불승); 不盡과 같다.

\*宣化(선화); 임금이 정사를 펼쳐서 백성을 교화함. 군주의 정치를 의미함.

\*附(부); 의지하다. 붙다.

\*使(시); 사신, 심부름꾼

\*遮護(차호); 호위하다. 엄호하다.

\*同(동); 與와 같다. 더불어, 함께.

【譯註】

<1>包絡 ; 包絡은 곧 心包絡(심포)을 말한다. 陳士鐸은 《外經微言 考訂經脈篇》에서 ‘心主之經 卽包絡之府也 又名膻中’라고 하여 心主와 膻中, 包絡 등을 心包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다.<8>

또한 《外經微言》의 다른 편에서 心主, 心包絡, 包絡, 膻中等의 여러 명칭을 혼용하고 있으나 모두 心包를 의미한다.

<2>臟止五腑有七 ; 여기서 말한 일곱 개의 腑는 기존의 六腑에 心包를 더한 것을 지칭한다.

<3>非臟列於臟中 ; 여기서 물은 뜻은 《靈樞·經脈》에서 心包를 12경락 배속에서 肝과 같은 厥陰에 배속하여 다른 五臟과 같이 三陰으로 分類한

7) 陳士鐸.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19

8) 膻中과 心包에 관해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학설과 膻中을 별개의 혈자리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靈樞·經脈》에서 心包를 肝과 같은 厥陰經에 배속하였고, 《素問 靈蘭秘典論》에서는 ‘十二藏’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후대 의가들은 三陰三陽論에 입각하여 六臟六腑說을 이야기하였는데 《難經》에서는 命門을 六臟에 배속하였으나 張景岳, 馬蒔, 虞搏 등은 心包를 六臟에 배속하였다.<sup>9)</sup>

<4>包絡與三焦爲表裏 二經皆有名無形 ; 《難經 25難》에서 최초로 心包와 三焦에 대하여 ‘心主(心包)와 三焦는 表裏가 되니, 모두 이름만 있고 形體가 없다.’<sup>10)</sup>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의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陳士鐸은 《難經》의 有名無形說을 인용하였으나, 表裏를 이루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펼친다.

<5>三焦爲孤臟 ; 《內經》에서 ‘孤臟’이라는 단어는 脾臟(玉機真藏論)이나 腎臟(逆調論)을 지칭한다.<sup>11)</sup> 三焦의 相合관계에 대하여 《靈樞 本輸篇》에서는 다른 臟腑에 相合하지 못하고 膀胱에 속하기 때문에 ‘孤之府’라고 표현하였다.<sup>12)</sup> 三焦가 孤臟이라는 표현의 출처는 찾지 못하였으나 문맥상 《靈樞》의 표현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6>包絡即膻中也 爲心膜隔 近於心宮 遮護君主 ; 心包가 心臟의 격막이 되어 心臟 가까이 있으면서 君主之官을 호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견해는 虞搏의 견해와 같다.<sup>13)</sup>

#### 【國譯】

天老가 岐伯에게 물었다. “하늘에는 六氣가 있어 땅의 五行을 化生하고 땅에는 五行이 있어 사람의

五臟을 化生하니 五臟이라는 陰이 있은즉 마땅히 五腑라는 陽이 있어야합니다. 어찌하여 臟은 다섯일 뿐인데 腑는 일곱이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심포락은 腑이지만 속성은 陰에 屬하기 때문에 (그 氣는) 臟氣와 서로 같다. 그래서 (다른) 六腑와 따로 배합한 것이다.”

天老가 말하였다. “心包絡은 부에 분배되지 만 心包는 (그 속성이) 곧 臟입니다. 어찌하여 臟으로 命名하지 않고 굳이 따로 구분하여 腑라고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絡은 臟이 아니기 때문이다.”

天老가 말하였다. “臟이 아닌데도 六臟 속에 배 열하였으니 틀린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內經에서) 臟을 다섯이라 하고 여섯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臟’이라는 명칭을 心包絡에 부여하지 않음이고, 腑를 여섯이라 하고 일곱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包絡을 ‘腑’로 命名하지 않은 것이다.”

天老가 말하였다. “心包絡이 臟도 아니고, 腑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三焦와 相合이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심포락과 三焦는 表裏가 되니 두 경이 모두 이름만 있고 形體가 없기 때문이다. 五臟은 形體가 있어서 (다른) 形體와 서로 합하고, 心包絡은 形體가 없기 때문에 形體가 없는 것(삼초)와 서로 합한다.”

天老가 말하였다. “삼초를 孤臟이라고 하니 곧 臟으로 命名한 것인데, 어찌하여 包絡과 相合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三焦가 비록 臟으로 不利지만 고독하여 相合하는 것이 적으니 즉 腑이고 臟은 아니다. 包絡의 氣가 없으면 실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자연히 (심포와) 짝하는 것이요 역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 아니다.”

天老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雷公이 말하였다. “폐와 大腸이 합하고, 心과 小腸이 합하고, 肝과 膽이 합하고, 비와 胃가 합하고, 腎과 膀胱이 합하니, 이것은 天合입니다. 三焦와 心包絡이 相合하는 것은 아마도 天合이 아닌 듯 합니

9) 歷代醫論選(장부학설편). 왕신화 편저. 금경수 역석. 서울, 대성문화사. 1996. pp.204-213.

10) 難經本義. 滑壽 原註.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편역. 주민출판사. 2003. pp.133-137. “二十五難曰, 有十二經, 五臟六腑十一耳, 其一經者, 何等經也. 然, 一經者, 水少陰與心主別脈也,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 故言經有十二也”

11) 謝觀 編者. 新編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139.

12)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晃教授停年退任紀念 靈樞研究集成 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62.

13) 왕신화 편저. 금경수 역석. 歷代醫論選(장부학설편). 서울. 대성문화사. 1996. p.206.

다.”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絡이 臟이 아닌데도 三焦와 相合하는 것은 心包絡이 裏가 되고 三焦가 表가 되는 것이다.”

雷公이 말하였다. “三焦도 腑인데 어째서 表裏로 나뉘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三焦의 氣는 本來 腎과 친하니, 腎과 친하되 相合하지 않는 것은 腎에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腎에 相合하지 않고 包絡에 相合하는 것이다.”

雷公이 말하였다. “心包絡의 火氣가 腎에서 나오는데도 三焦가 腎에서 火氣를 취하는 것은 心包에서 火氣를 전부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膀胱과 腎은 表裏가 되니 그렇다면 腎의 火氣는 반드시 膀胱과 친하고 三焦와는 (상대적으로) 소원할 것이다. 心包絡은 腎의 火氣를 얻어 스스로 그 腑를 이루어 心君의 宣化를 대신하니 비록 腑이지만 (기능이) 臟과 같다. 心包絡은 다른 腑의 附屬이 없어서 三焦의 의탁에 더욱 친해지니, 이 때문에 三焦는 기꺼이 表가 되고 心包 또한 (삼초의) 속에서 편안해져서 외로운 것이 외롭지 않게 되니 자연히 相合한 것은 영원히 相한다.”

雷公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應龍이 물었다. “心包絡은 腑이고, 三焦도 스스로 腑가 되는데 어찌하여 心包絡의 부림을 받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絡은 곧 膻中이다. 心臟의 膈膜이 되어 心宮에 가까이 있으면서 군주를 호위하니, 그 위치는 가장 가깝고 권한은 가장 무겁다. 그러므로 三焦가 명령을 불행하여 감히 뒤로 늦추지 못하는 것이다.”

應龍이 말하였다. “心包絡은 心을 대신하여 教化를 펼치니, 마땅히 각 臟腑들이 모두 받들어 相合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유독 三焦만을 부리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각 臟腑들은 表裏가 있기 때문에 心包絡의 명령을 듣지 않지만, 오직 三焦만은 表裏관계가 되는 臟이 없다. 그러므로 心包絡이 三焦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應龍이 말하였다. “三焦는 어째서 기꺼이 心包的 부림을 받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絡은 心을 대신하여 臟과 腑를 다스리니, (장부들이) 三焦와 함께 心包絡의 명령을 듣는 것은 心의 명령을 듣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包絡은 裏가 되고 三焦는 表가 되니, 어찌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겠는가?”

應龍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나(진사탁)는 생각한다. “心包가 三焦와 相合하는 것은 근거없는 相合이 아니니, 心包가 三焦를 부리는 것은 그 相合에 의해서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相合하는 것은 곧 心에 相하는 것일 뿐이요, 包絡이 相合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 【考察】

본편에서는 주로 心包的 臟腑배속과 三焦와의 관계를 논하였다.

##### 1) 心包的 臟腑배속

; 이 편에서 陳士鐸은 心包를 臟의 속성을 가진 腑로 규정하였고 《難經》의 설을 인정하여 無形의 腑라고 하였다. 다만 《外經微言》에서는 心包를 부로 배속시킨 자세한 논의가 없는데 그의 다른 저서인 《石室秘錄》에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

《石室秘錄》에서 陳士鐸은 膻中(심포)이 心을 둘러싸고 心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일종의 表裏관계에 있기 때문에 內部에 위치한 心은 臟으로 배속하고 外部에 위치한 心包는 腑로 배속해야 된다고 하였다.<sup>14)</sup> 즉 다른 臟腑들이 陰陽論에 입각하여 배속된 것과는 달리 心과 心包的 해부학적인 관계와 기능을 고려한 分類로 볼 수 있다

14)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391. “六腑外에 更有膻中하니 亦一腑也라 膻中은 即心包絡이니 代君火司令者也라 膻中與心은 原爲一臟一腑하야 兩相表裏나 今獨稱心而遺膻中하니 非膻中不可爲腑라 尊心爲君火하야 不得不抑膻中爲相火也라 或曰千古不治膻中하고 何以治心而皆效오 不知心與膻中爲表裏니 表病則裡亦病라 故治裡而表自愈어늘 況膻中爲脾胃之母아 土非火不生하니 心火不動이라가 必得相火之往來以生之하니 而後胃氣能入하고 脾氣能出也라 膻中既爲脾胃母인댄 謂不足當一腑之位乎아 此膻中之爲一腑니 人當留意라”

2) 心包의 생리적 특성.

(1) 心臟의 膈膜이 되어 君主之官인 心臟을 보호하고, 心君을 대신하여 다른 臟腑에 명령을 전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2) 相火를 가지고 있으며, 腎臟에서 火氣를 취하여 완성된다고 하였다.

(3) 心臟과의 관계로 인하여 腑에 배속하지만 실질적인 속성과 氣는 臟에 가깝다. 그래서 ‘非臟非腑’의 특성을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3) 心包와 三焦의 관계

; 心包와 三焦의 관계에 대하여 陳士鐸은 心包가 裏가 되고 三焦는 表가 되는 表裏관계이며 相습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1) 《難經 二十五難》의 설을 인용하여 三焦와 心包는 모두 無形의 臟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相습된다고 하였다.

(2) 《內經》에서 三焦는 相습관계가 없는 ‘孤府’로 표현하였고 陳士鐸 역시 유사한 의미의 ‘孤臟’으로 표현하였다. 三焦가 相습이 되는 臟腑가 없고, 心包 또한 짝을 이루는 臟腑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三焦와 相습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心包는 속성이 臟과 같으면서 三焦보다 心臟에 가까운 위치이고, 三焦는 상대적으로 외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表裏관계에서 心包는 裏가 되고 三焦는 表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설은 장경악의 醫論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張景岳은 《類經 經絡類》에서 心包와 三焦가 表裏를 이루는 이유에 대하여 張景岳은 心包와 三焦가 각각 心臟과 臟腑를 호위하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表裏를 이룬다고 말하였다.<sup>15)</sup>

(3) 三焦가 다른 臟腑와 相습관계가 없기 때문에 心包에 배속되며, 그로 인하여 주로 心包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였다. 心包의 명령은 心君의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臟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相습관계인 三焦가 表의 위치에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 2. 『包絡火篇』에 나타난 陳士鐸의 心包論

본편에서는 주로 心包의 病理와 治法을 논하였다. 心包는 相火에 해당하고, 心火에 비하여 陰的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胃와 肺에 해를 끼치기 쉽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리적인 心包의 火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직접 心包火를 공격하지 말고 肝과 腎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原文】

少師曰 心包之火, 無異心火하니 其生克同乎잇가

岐伯曰 言同則同이오 言異則異<1>라 心火生胃나 心包之火不止生胃也오 心火克肺나 心包之火不止克肺也니라

少師曰 何謂也오

岐伯曰 心包之火生胃<2>나 亦能死胃나 胃土衰에 得心包之火면 而土生이나 胃火盛에 得心包之火면 而土敗\*라 土母既敗한대 肺金之子何能生乎아

少師曰 同一火也어늘 何生克之異잇고

岐伯曰 心火는 陽火也니 其勢急而可避나 心包之火는 陰火也니 其勢緩而可親이라 故心火之克肺는 一時之刑이나 心包之克肺는 實久遠之害라 害生於刑者는 勢急而患未大하고 害生於恩者는 勢緩而患漸深也니라<3>

少師曰 可救乎잇가

岐伯曰 亦在制火之有餘而已라

少師曰 制之奈何오

岐伯曰 心包는 陰火니 竊心之陽氣以自養이나 亦必得腎之陰氣以自存이라 心欲溫腎하고 腎欲潤心하니 皆先交心包以通之<4>라 使\*腎水少衰면 心又分其水氣하고 腎且\*供心火之不足하니 安能分餘惠以慰心包리오 心包乾涸\*하면 毋愧其害胃土也<5>라 補腎水之枯則水足灌心而化液即足하고 注心包而化津하니 此不救胃나 正所以救胃也라.

少師曰 包絡之火, 可瀉乎잇고

岐伯曰 胃土過旺에 必瀉心包之火나 然心包之火는 可暫瀉而不可久瀉也니 心包逼近\*於心하야 瀉包絡則心火不寧矣니라

15) 張介賓 著. 이남구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269. “心包絡은 包心之膜絡也라 包絡爲心主之外衛요 三焦爲藏府之外衛라 故爲表裏而相絡이라”

少師曰 然則奈何  
岐天師曰 肝經之木이 包絡之母也니 瀉肝則心包絡之火必衰矣<6>니라  
少師曰 肝亦心之母也니 瀉肝而心火不寒乎잇가  
岐天師曰 暫瀉肝則包絡損其焰而不至於害心이라 卽\*久瀉肝則心君減其炎이나 亦不至於害包絡하니 猶勝\*於直瀉包絡也니라  
少師曰 誠若師言인댄 瀉肝經之木은 可救急而不可圖緩이니 請問善後之法하노이다.  
岐伯曰 水旺則火衰는 旣濟之道\*也니 安能舍\*補腎水하고 別求瀉火哉리오  
少師曰 善다  
陳士鐸曰 包絡之火爲相火니 相火宜補不宜瀉也<7>라 宜補而用瀉면 必害心包矣니라<sup>16)</sup>

【字句解】

- \*敗(패); 손상되다.
- \*使(사); 만약. 가정을 만드는 허사.
- \*且(차); 장차
- \*乾涸(건학); 물이 말라 없어짐.
- \*逼近(뽀근); 接近과 같다. 가까이 붙어있음.
- \*卽(즉); 만일~라도. 만일~한다면. (가정법을 만드는 허사)
- \*勝(승); ~보다 낫다. (비교우위를 나타냄)
- \*旣濟之道; 旣濟는 《周易》의 괘이름으로 水火旣濟(수화기제)라고도 한다. 水氣와 火氣가 서로 교류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 \*舍(사); 버리다.

【譯註】

<1>言同則同, 言異則異 ; 心包와 心이라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도 다르다는 의미이다. 心包는 相火를 가지고 있고, 心은 君火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火이지만 생리, 病理적으로 차이점을 보인다는 본문의 내용을 일으키는 표현이다.

<2>心包之火生胃 ; 陳士鐸은 인체내의 火를 君火와 相火로 구분하였고, 相火는 다시 心包, 三焦,

命門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外經微言 脾土篇》에서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火生土의 관계는 君火, 相火가 모두 관여하는데, 相火인 心包, 三焦, 命門이 보다 더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였다<sup>17)</sup>. 또한 脾土와 胃土를 陰土와 陽土로 나누어서 脾土는 心火가 生하고, 胃土는 心包火가 生한다고 區別하였다<sup>18)</sup>.

<3>心火 陽火也 其勢急而可避 心包之火 陰火也 其勢緩而可親 故心火之克肺 一時之刑 心包之克肺 實久遠之害 害生於刑者 勢急而患未大 害生於恩者 勢緩而患漸深也 ; 心과 心包를 君火와 臣火의 관계로 보고 임금인 君火는 陽이 되고 臣下인 相火는 陰이 되는 것으로 分類하였다. 《外經微言 肺金篇》에서는 ‘肺가 火氣 가까이 가면 부드러운 金氣는 반드시 늙는다. 그러나 肺가 火氣와 떨어지면 金氣가 딱딱해져 반드시 부러지니, 微火(작은 불꽃)가 귀한 것은 肺를 薰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土에 火氣가 없으면 肺金의 기운을 생할 수 없고, 토중에 火氣가 많으면 또한 肺金의 氣를 생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맹렬한 火氣를 肺가 두려워하고 微火를 肺가 좋아하는 것이다<sup>19)</sup>.’라고 하여 肺가 작고 부드러운 火氣는 좋아하고 맹렬한 火氣를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본편에서는 구체적으로 心包火가 陰火로 부드럽고 완만하기 때문에 肺와 친하지만, 病理적인 상태로 변하면 오히려 肺를 크게 해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4>心欲溫腎 腎欲潤心 皆先交心包以通之 ; 《石室秘錄》에 유사한 표현이 보인다.<sup>20)</sup> 陳士鐸은 陰

17) 岐伯天師傳, 陳士鐸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31. “岐伯曰 脾土之父母는 不止一火也니 心經之君火와 包絡三焦命門之相火가 皆生之라 然而君火之生脾土는 甚疏하고 相火之生脾土는 甚切하니 而相火之中에 命門之火尤爲最親이라”

18) 岐伯天師傳, 陳士鐸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34. “雖生土在於火也 然火各異 生脾土必須於心 生胃土必須於包絡 心爲君火 包絡爲相火也”

19) 岐伯天師傳, 陳士鐸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08. “肺近火則金氣之柔者必銷矣나 然肺離火則金氣之頑者必折矣니 所貴微火以通薰肺也라 故土中無火면 不能生肺金之氣나 而土中多火면 亦不能生肺金之氣也니 所以烈火爲肺之所畏하고 微火爲肺之所喜라”

20) 陳士鐸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8. “心必得腎水以滋養, 腎必得心

16) 陳士鐸.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7

陽과 五行간의 生克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여 臟腑생리와 病理, 辨證이론에 활용하였다.<sup>21)</sup> 心和 腎의 관계 역시 水火既濟의 논리에 입각하여 상극 관계를 넘어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를 통하여 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 心腎이 心包를 통하여 서로 교류한다는 내용은 《外經微言 膀胱水篇》에서를 통하자세한 기전을 볼 수 있지한다心包가 心の 外部를 둘러싸고 명령을 대행하기 때문에 心包相火와 함께 心腎이 교통한다고 하였다.<sup>22)</sup> 또한 《石室秘錄 腑治法》에서는 膀胱의 기화작용은 心包火가 있어야 가능하며, 小便不通이 있을 때 반드시 心包火를 같이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였다.<sup>23)</sup>

다만 陳士鐸은 胞胎에 대해서도 心和 腎의 교통을 담당한다고 하였는데,<sup>24)</sup> 胞胎는 하부에 위치하고, 心包는 상부에서 心臟에 붙어있는 차이점이 있다.

<5>心包乾涸 毋愧其害胃土也 ; 《外經微言 五行生克篇》에서 陳士鐸은 生하는 관계에서도 克하는狀況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心火와 心包火에 水氣가 없으면 지나치게 뜨거워져 土인 脾胃를 도리어 해치게 된다고 하였다.<sup>25)</sup> 이 편에서는 心火보다는 相火인 心包火가 病理적으로 변하면 더욱 脾

火而溫暖”

21)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146~1148.

22) 岐伯天師 傳, 陳士鐸 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52. “少師曰 君火無爲오 相火有爲니 君火不下降하고 包絡相火正可代君出治라 何以心火不交相火면 亦不降乎잇고 岐伯曰 君臣一德而天下治하니 君火交而相火降이면 則膀胱得火而水化하고 君火離而相火降이면 則膀胱得火而水乾이라 雖君火恃相火而行이나 亦相火必藉君火而治하니 腎得心火之交하고 又得包絡之降라야 陰陽合爲一性이라”

23)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9. “蓋膀胱必得氣化而始出, 氣化者何, 心包絡之氣也. 膀胱必得心包絡之氣下行而水路能出”

24) 岐伯天師 傳, 陳士鐸 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63. “胞胎處水火之兩歧하니 心腎之交가 非胞胎之系면 不能通達上下라”

25) 岐伯天師 傳, 陳士鐸 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72. “雷公曰 何以見生中之克乎잇고 岐伯曰 腎生肝이나 腎中無水면 水潤而火騰矣라 肝木受焚하니 腎何生乎아 肝生心이나 肝中無水면 水燥而木焦矣라 心火無烟하니 肝何生乎아 心은 君火也오 包絡은 相火也니 二火無水면 時自炎也라 土不得火之生하고 反得火之害矣니라”

胃를 해친다고 설명하였다.

<6>肝經之木 包絡之母也 瀉肝則心包絡之火必衰矣 ; 陳士鐸은 五行相生의 관계를 臟腑간의 생리, 병리현상에 적용하였으며 肝(木)과 心包(火) 역시 모자 관계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문에서 心包的 病理적인 熱證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肝을 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石室秘錄》<sup>26)</sup>에서는 구체적인 辨證과 處方을 제시하고 있다.

<7>相火宜補不宜瀉也 ; 여기서 말한 相火는 생리적인 相火를 의미하며, 命門과 三焦, 心包가 가지고 있다. 陳士鐸은 命門과 腎水를 중시하였는데, 특히 命門은 先天의 水火이며 無形의 水火가 있어서 生命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sup>27)</sup> 心包的 相火 역시 命門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 【國譯】

少師가 말하였다. “心包的 火는 心火와 다르지 않으니, 그 生克도 같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말이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른 것이다. 心火는 胃를 생하지만 心包的 火는 胃를 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心火는 肺를 克하지만 心包的 火는 肺를 克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少師가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的 火는 胃를 생하지만 또한 능히 胃를 죽일 수도 있으니, 胃土가 쇠약할 때 心包的 火를 얻으면 土가 살아나지만 胃火가 盛한 때에 心包的 火를 얻으면 土가 손상된다. 母인 土가 이미 손상되었는데 아들인 肺金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少師가 말하였다. “같은 火인데 어찌하여 生克에서 차이가 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心火는 陽火이니 그 형세가 급하여 피할 수 있으나 心包的 火는 陰火이니 그

26)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91. “蓋包絡之熱은 由於肝經之熱也라 瀉其肝木之旺하야 而去其郁熱之火면 不必救包絡之焚而包絡之火自衰矣니라”

27) 최종필, 陳士鐸의 命門說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석사논문, 2006. pp.15-18.

형세가 완만하여 친할 수 있다. 그러므로 心火가 肺를 克하는 것은 한 때의 형벌이지만, 心包가 肺를 克하는 것은 실로 오래도록 가는害이다. 형벌에서 發生한害는 형세가 급박하지만 우환이 크지 않고, 은혜로운 곳에서 생겨난害는 형세가 완만하지만 우환이 점차 심해진다.”

少師가 말하였다. “(심포로 인한 해로움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역시 火의 有餘를 制裁하는데 있을 뿐이다.”

少師가 말하였다. “(心包火의) 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心包는 陰火이니 心의 陽氣를 훔쳐 자신을 기르지만 또한 반드시 腎의 陰氣를 얻어야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心은 腎을 따뜻하게 하려하고 腎은 心을 滋潤하려하는데 모두 먼저 心包를 거쳐서 交通한다. 만약 腎水가 조금 쇠약해지면 心 또한 자신의 水氣를 나누어주고 腎은 장차 心火의 부족해진 水氣를 공급해주려 할 것이니 (腎이) 어찌 남는 혜택을 나누어 心包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心包가 (水氣가) 건조해지면 거리낌 없이 胃土를 해친다. 마른 腎水を 보하면 水가 충분히 心에 공급되어 心液의 化生이 곧 충족되고 (化生된 心液이) 心包로 흘러가서 津을 化生하니 이것은 (직접) 胃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곧 胃를 구하는 것이다.”

少師가 말하였다. “心包의 火를 瀉해도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胃土가 지나치게 왕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心包의 火를 瀉해야 한다. 그러나 心包의 火는 잠깐 瀉할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瀉하면 안되니, 心包는 心에 가까이 붙어있어서 心包를 瀉하면 心火가 불안해진다.”

少師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肝經의 木氣는 心包絡의 어머니이니, 肝을 瀉하면 心包의 火는 반드시 쇠약해진다.”

少師가 말하였다. “肝은 또한 心의 어머니이니 肝을 瀉하면 心火가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잠깐 肝을 瀉하면 心包는 그 화염을 줄이지만 心을 해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만일 肝을 오랫동안 瀉하더라도 心君은 그 화염을 줄이겠지만 心包에 해가 미치지 않는으니, 오히려 곧바로 心包를 瀉하는 것보다 낫다.”

少師가 말하였다. “진실로 선생님의 말씀과 같다면 肝經의 木氣를 瀉하는 것은 급박한 것을 구할 수는 있어도 완만한 병세를 도모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좋은 후처치법을 말씀해주시오.”

岐伯이 말하였다. “水가 왕성하면 火가 쇠약해지는 것은 既濟의 道이다. 어찌 腎水を 보하는 방법을 버려두고 따로 火를 瀉하는 방법을 구하겠는가?”

少師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心包絡의 火는 相火이니, 相火는 마땅히 補해야 하고 瀉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보해야 할 것인데 사법을 쓴다면 반드시 心包를 해칠 것이다.’

#### 【考察】

본편에서는 心包와 다른 臟腑간의 생리, 病理적인 관계를 논하고, 그에 기반한 心包병리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였다.

1) 心包火는 相火이며, 心火에 비해 상대적으로 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극관계인 肺와 相生관계인 胃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2) 생리적으로 心包는 相火에 속하고 三焦, 命門과 함께 脾土와 相生의 관계가 있다.

3) 心包의 火는 心의 陽氣와 腎의 陰氣를 모두 얻어서 성립되며 생리적 특성에 의해 腎水가 부족해지면 心火보다 心包火가 먼저 건조해지기 쉽다. 心包火가 건조해지면 胃土를 왕성하게 하여 病理적인 상태로 빠지게 하며, 이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根本原因이 되는 腎水の 부족을 보충해야 한다.

4) 心包의 火는 相火이고, 心包가 心을 둘러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瀉하면 안된다. 다만 급박한 狀況일때 잠깐 瀉法을 쓸 수 있고, 직접 瀉하는 것보다는 모자관계인 肝木을 瀉하는 치료법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肝을 瀉하는 치료법은 心火와 心包火의 病的인 상태를 모두 치료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5) 心包火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크게 腎水를 자양하는 방법과 肝木을 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완만하고 오래된 병세를 치료하고 후자는 급박한 병세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 3. 『臟腑闡微論』에서 心包를 논한 부분.

『臟腑闡微論』은 陳士鐸이 六臟七腑說을 주장한 편이다. 주로 胞胎에 대한 논의가 많고, 후반부에서 心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原文】

雷公曰 腑七而名六은 何也잇고

岐伯曰 大小腸膀胱膽胃三焦包絡이 此七腑也니 遺包絡不稱腑者는 尊帝耳니라

雷公曰 包絡可遺乎잇고

岐伯曰 不可遺也라 包絡爲脾胃之母니 土非火不生이라 五臟六腑之氣가 咸仰於心君하니 心火無爲<sup>28)</sup>오 必包絡有爲라 往來宣布하야 胃氣能入하고 脾氣能出하야 各臟腑之氣始能變化也니라

雷公曰 包絡旣爲一腑인댄 奈何尊帝遺之오 尊心爲君火하고 稱包絡爲相火<5>면 可乎인저 請登\*之外經 咸以爲則하노이다

陳達公曰 臟六而言五者는 言臟之正也오 腑七而言六者는 言腑之偏也라 舉五而略六는 非不知胞胎也오 舉六而略七는 非不知包絡也라 有雷公之間而胞胎包絡이 昭于古今矣니라<sup>29)</sup>

#### 【國譯】

雷公이 말하였다. “ 腑가 일곱인데 여섯이라고

28) 여기서 말하는 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덕을 수양하면서 정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의 자리에서 함부로 動하지 않고 자신의 덕으로 모범을 보이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유교 사상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9) 陳士鐸,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14.

한 것은 왜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大腸, 小腸, 膀胱, 膽, 胃, 三焦, 包絡이 七腑이니, 包絡을 빼고 腑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임금을 높인 것이다.” 雷公이 말하였다. “包絡이 빠질 수 있습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뺄 수 없다. 包絡은 脾胃의 母이니 土는 火가 아니면 生하지 못한다. 五臟六腑의 氣가 모두 心君을 우러러 보는데, 心火는 無爲니 반드시 包絡의 작용이 있어야 (臟腑사이를) 왕래하면서 宣布하여 胃氣가 들어가고 脾氣가 나올 수 있으며 각 臟腑의 氣가 脾로서 변화할 수 있다.” 雷公이 말하였다. “包絡이 이미 하나의 腑가 되는데 어찌 임금을 높여서 빼버립니까? 心臟을 높여 君火로 부르고 包絡을 相火로 부르면 괜찮을 것입니다. 청컨대 《外經》에 실어서 모두들 법칙으로 삼겠습니다.”

陳遠公이 말한다. “ 臟이 여섯인데 다섯을 말한 것은 臟의 正을 말한 것이요, 腑가 일곱인데 여섯을 말한 것은 腑의 치우친 것을 말한 것인지라. 五臟을 거론하면서 여섯 번째를 생략한 것은 胞胎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六腑를 거론하면서 일곱 번째를 생략한 것은 包絡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雷公의 질문이 있어 胞胎와 包絡이 古今에 밝혀졌다.”

#### 【考察】

이 편에서 陳士鐸은 六臟七腑說을 주장하면서 心包를 腑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心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논하였다.

1) 心包는 相火에 해당하며, 心과 함께 脾胃와 母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생리적으로 心과 心包가 모두 온전하게 작용해야만 脾胃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하였다.

2) 心은 임금이 無爲의 정치를 행하는 것처럼 직접 움직이지 않으며 心包가 대신하여 명령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心包를 心과 거의 동격으로 보았으며, 君火와 相火로 대비시켰다.

### 4. 『考訂經脈篇』중 心包에 관한 부분.

『考訂經脈篇』은 《靈樞·經脈》의 내용을 기본으로 陳士鐸이 여러 의가들의 주석과 자신의 견해

를 편집하여 12經絡을 설명한 篇이다. 본문 중에 手厥陰心包經에 대한 부분에서 心包의 생리적 특성을 위주로 心包經의 流注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原文】

雷公曰 請言心主之經하노이다

岐伯曰 心主之經은 卽包絡之府也니 又名臚中이라 屬手厥陰者는 以其代君出治\*하야 爲心君之相臣이러니 臣乃陰象이라 故屬陰이라 然이나 奉君命以出治에 有不敢少安於頃刻\*이라 故其性又急하야 與肝木之性正相同하니 亦以厥陰名之오 因其難順而易逆也라 夫心之脈出於心之本宮하고 心包絡之脈出於胸中包絡하니 在心之外오 正在胸之中이라 是脈出於胸中者는 正其脈屬於包絡之本宮也니 各臟腑脈出於外환래 心與包絡脈出於中은 是二經較各臟腑最尊也일새니라 夫腎系交於心包絡하야 實與腎相接하니 蓋心主之氣가 與腎宮命門之氣로 同氣相合이라 故相親而不相離也라 由是下於膈하야 歷\*絡三焦하니 以三焦之腑氣가 與命門心主之氣로 彼此實未嘗異하야 所以籠絡\*而相合爲一일새니 有表裏之名이나 實無表裏也니라 其支者는 循胸中出脇하야 抵腋하고 循臚內하야 行於太陰肺脾와 少陰心腎之中하니 取肺腎之氣以生心液也라 入脈하야 下臂하고 入掌內하야 又循中指以出其端이라 其支者는 又由掌中\*循無名指以出其端하야 與少陽三焦之脈相交會하니 正顯其同氣相親하야 表裏如一也라 夫心主與三焦兩經也나 必統言其相合者니 蓋三焦無形이라 借心主之氣하야 相通於上中下之間이라 故離心主無以見三焦之用이니 所以必合而言之也니라<sup>30)</sup>

【字句解】

- \*出治(출치); 나라를 다스림. 治理國家.
- \*頃刻(경각); 짧은 時間. 순간.
- \*歷(력); (공간을) 지나가다.
- \*籠絡(농락); 둘러싸며 연락하다. 纏絡也.
- \*掌中(장중); 역대의 註釋들은 勞宮穴로 보았다.<sup>31)</sup>

30) 陳士鐸.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p.17-18.

31)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炆教授停年退任紀念 靈樞研究集成 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295.

【譯】

雷公이 말하였다. “청컨대 心主의 經脈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시오.”

岐伯이 말하였다. “心主의 經脈은 즉 包絡의 府이니 臚中이라고도 한다. 手厥陰에 속하는 것은 心包가 心君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려서 心君의 재상이 되는데, 신하는 곧 陰의 형상이므로 (심포경이) 陰에 속한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감히 잠시라도 편안히 있지 못하므로 그 성질이 또한 급하여 肝木의 성질과 똑같으니 또한 厥陰이라고 命名한 것이요, 따라서 心包는 順하기는 어렵고 쉽게 逆한다. 무릇 心의 經脈은 心의 本宮에서 나오고 心包絡의 經脈은 胸中の 包絡에서 나오니 心臟의 밖에 있고 바로 가슴 속에 위치한다. 이 經脈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脈이 包絡의 本宮에 속해있기 때문이니, 각 臟腑의 맥은 外部에서 나오는데 心과 包絡의 맥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두 經脈이 다른 臟腑에 비하여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隔膜 아래로 내려가서 上·中·下 三焦와 絡하는데 三焦腑의 氣가 命門 및 心包의 火氣와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아서 絡하여 하나로 합치되니, 表裏라는 명칭은 있으나 실은 表裏의 구분이 없다. 그 支脈은 가슴 속으로부터 열구리로 나와서 겨드랑이에 이르고 팔 안쪽을 따라서 太陰肺脾와 少陰心腎의 가운데로 走行하니 肺腎의 氣를 취하여 心液을 생성하는 것이다. 經脈으로 들어가서 팔뚝으로 내려가고,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운데 손가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온다. 그 支脈은 다시 掌中에서 無名指를 따라 그 끝으로 나와서 手少陽三焦經脈과 交會하니 바로 같은 氣가 서로 친하여 表裏가 동일해진다. 무릇 心包와 三焦는 두 개의 經絡이지만 반드시 그 相合하는 것을 통괄하여 말해야하니, 이는 三焦가 形體가 없어서 心主의 氣를 빌려 上中下의 경계를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主를 떠나서는 三焦의 작용을 볼 수 없으니 반드시 합해서 말해야 된다.”

【考察】

본문에서는 手厥陰心包經의 流注와 생리를 설명하였는데 心包의 생리적 특성에 맞춰서 《靈樞》의 내용을 편집하였다. 본문내용 중에서 心包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心包는 肝과 같은 厥陰風木의 특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心의 명령을 바로 수행해야 하는 제상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心의 명령을 빠르게 수행해야 하는 생리적 속성이 厥陰風木의 성질과 부합하며, 따라서 心包는 쉽게 逆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2) 心包와 三焦, 命門은 모두 같은 相火의 氣가 있으며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즉 해부학적인 위치에 의해 表裏로 구분하지만 그 속의 기운은 모두 같으며, 특히 三焦는 心包의 氣에 의지해서 상승하로 통하기 때문에 항상 心包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心包의 위치는 心臟이 위치한 胸中이며, 心經과 함께 胸中에서 外部로 나아가는 經絡이라고 하였다. 또한 心包는 肺와 腎의 氣를 취하여 心液을 생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5. 心包의 임상활용례.

《外經微言》은 《黃帝內經》과 같은 형식으로 저술되었고, 韓醫學이론에 대한 자신의 의론을 논하였기 때문에 心包와 關聯된 구체적인 辨證이나 치료법은 없다. 다만 그의 다른 醫書인 《石室秘錄》과 《辨證奇聞》 등에 心包와 關聯된 辨證論과 處方 등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外經微言》의 心包이론이 어떻게 臨床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이에 心包의 임상활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考察해보기로 한다.

### 1) 《石室秘錄》에서 보이는 心包의 病理와 임상응용.

#### (1) 心包와 心臟, 肝의 관계를 응용한 心痛의 치료.

《石室秘錄 偏治法》에서 陳士鐸은 心痛의 原因이 心臟이 아닌 心包에 있으며, 治法은 相生관계인 肝을 다스려야 한다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心痛은 사람들이 心의 병이라고 하지만, 心은 神明을 주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邪氣가 침범할 수 없으니 침범한다면 곧 죽게 됨을 알지 못해서이다. 心病에 걸린 사람이 연중 내내 낮지 않는 경우는 心痛이 아니다. 이는 心包가 心의 막이 되어 心宮을 막고 있는데 邪氣가 心包에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것이다. 心包는 膻中이라고 하는데 곧 心의 臣下이니 제상이 도적(邪氣)의 공격을 당하였는데 임금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臣下가 옥을 당하면 군주는 근심하게 되니 이것이 심장이 아프고 불편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心包를 치료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굳이 肝이 책입지는가? 肝은 木에 속하고 心包는 火에 속하니 肝木은 心火를 生한다. 肝木의 寒氣를 치료하면 心火를 滋養함이 있어 心包의 寒邪가 저절로 흩어지니 하물며 肝木의 氣가 이미 따뜻하게 된 狀況에서라! 心을 生하고 남은 기운이 반드시 心包로 와서 살려준다. 그러므로 굳이 心包를 구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肝을 구하는 것이다. 肝木이 寒邪를 당하면 (肝氣가) 凝滯되어 퍼지지 못하니 肝 속의 邪氣를 疏散시키는 것이 곧 心包의 邪氣를 疏散시키는 것이다. ....(중략)..... (열로 인한 心痛에도) 治法은 역시 肝이 담당한다. 이는 心包의 열이 肝經의 열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니 肝木의 왕성함을 瀉하여 鬱熱된 火를 제거하면 굳이 心包의 불을 구체하지 않더라도 心包의 火는 자연히 줄어든다.’<sup>32)</sup>

여기서 陳士鐸은 心痛의 原因은 寒邪나 熱邪가

32)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91. “心痛은 人以為病在心上나 不知心乃神明之宰하야 一毫邪氣不可干犯이니 犯則立死라 人病心痛하야 終年累月而不愈者는 非心痛也라 乃包絡為心之膜니 以障心宮하야 邪犯包絡하면 則心必痛이라 包絡名爲膻中이니 乃心之臣也라 相為賊所攻한대 君有不振恐者乎아 臣辱則君憂하니此心之所以痛而不寧也라 然則宜治包絡이로대 何以必責之肝也오 肝屬木하고 包絡屬火하니 肝木生心火라 治其肝木之寒면 則心火有養而包絡之寒邪自散은 況肝木之氣既溫인저 生心之餘는必能來生包絡하니 故不必救包絡而必先救肝이라 肝木得寒則澀而不舒하니 散肝中之邪은 即所以散包絡之邪也라. ...(중략)... 治法亦責之肝이니 蓋包絡之熱은 由於肝經之熱也라 瀉其肝木之旺而去其郁熱之火하니 不必救包絡之熱라도 而包絡之火自衰矣니라”

心包를 侵入한 것이고, 치법은 모두 相生관계인 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病邪에 따라 處方을 구분하였으나 핵심은 肝을 다스리는 것이다.

## (2) 心包와 膀胱의 관계를 응용한 小便不利의 치료.

《石室秘錄 辨治法》에서는 小便不通의 치료를 논하면서 ‘방광은 반드시 氣化를 얻어야만 (소변을) 내보낼 수 있으니 氣化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心包絡의 氣이다. 따라서 膀胱은 반드시 心包絡의 氣가 下行해야만 水路를 내보낼 수 있다.’<sup>33)</sup> 라고 하여 뿐만이 아니라 心包를 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外經微言 膀胱水篇》에서 말한 心包와 腎, 膀胱의 관계를 臨床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4)</sup>

## 2) 《辨證奇聞》에 보이는 心包的 病理와 臨床응용.

### (1) 心包와 胃의 관계를 활용한 痰症의 辨證論治.

陳士鐸은 《辨證奇聞 痰症門》에서 痰飲腹痛을 논하면서 그 原因을 胃虛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치법으로 心包火를 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진략).. 痰이 생기는 것은 胃氣虛가 原因이고 痰이 완성되는 것은 水氣에 感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痰을 治療하려면 반드시 먼저 水氣를 다스려야 하고, 水氣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胃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니 다시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다만 胃氣의 쇠약함은 胃氣 스스로 쇠해진 것이 아니니 胃土만 補해서는 胃氣 스스로 왕성해지지 못한다. 이는 胃氣의 쇠약함이 心包氣의 쇠약함

과 같기 때문이니, 胃氣는 心包火가 아니면 生하지 못한다. 胃土를 보하려면 반드시 心包火를 補해야 한다.’<sup>35)</sup>

### (2) 心包와 心, 腎의 관계를 활용한 眼病의 辨證論治

《辨證奇聞 燥症門》에서는 눈동자가 당기고 작아지는 症狀을 논하면서 그 기전에 대하여 心包의 水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根本적으로는 腎水의 부족이 原因이라고 하였다.

‘心包가 相火에 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腎水의 滋益함에 의지하니, 腎이 心包와 교류하지 못하면 心包는 心과 교류하지 못한다. 火가 水의 救濟를 받지 못한다면 心包는 (水氣 없이) 火氣만 있어서 그 건조함이 지극해 질 것이니 어떻게 안으로는 心을 運택하게 하고 밖으로는 眼을 運택하게 할 수 있으며, 급박한 疔瘡에서 어찌 위로 눈동자를 살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눈동자가 당기고 작아지는 症狀은 모두 心包에 水氣가 없기 때문이요, 心包의 水氣가 없는 것은 모두 腎水가 말랐기 때문이니 腎을 보하여 心包를 滋養하는 治療를 어찌 늦출 수 있으리오!’<sup>36)</sup>

## IV. 結論

### 1. 心包的 생리.

#### 1) 心包的 臟腑배속과 해부학적 위치

(1) 心包를 臟의 속성을 가진 腑로 규정하였고 《難經》의 설을 인정하여 無形의 腑라고 하였다.

35)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2. “然則痰之來也 是 由於胃氣之虛 和 痰之成也 是 由於水氣所感이니 治痰必先治水而消水 必先健胃니 又何疑乎아 惟是胃氣之衰는 非胃能自衰也니 補胃土而胃氣不能自旺이라 蓋胃氣之衰가 猶心包之氣弱也니 胃氣非心包之火不能生이라 補胃土인댄 必須補心包之火耳니라”

36)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68. “所以心包屬火는 全恃腎水之滋益이니 腎不交於心包면 卽心包不交於心이라 火非水濟면 則心包無非火氣하야 其乾燥之極하니 又何能內潤心而外潤目하며 窘迫情形한대 安得不上顯於瞳神乎아 然則瞳神之緊小는 皆心包之無水也오 而心包之無水는 皆腎水之乾枯也일세니 補腎以滋心包 又烏可緩哉리오”

33) 陳士鐸 原著. 劉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9. “蓋膀胱必得氣化而始出하니 氣化者何오 心包絡之氣也라 膀胱必得心包絡之氣下行而水路能出膀胱이라”

34) 岐伯天師 傳, 陳士鐸 述, 노영균 편역.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151. “心火下交於腎면 則心包三焦之火齊來相濟하야 助胃以化膀胱之水라 倘心不交腎면 心包三焦之火各奉心火以上炎하니 何敢下降以私通於腎이며 既不下降인댄 敢代君以化水乎아”

그 이유에 대하여心を 둘러싸고 心を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心과 심포는 일종의 表裏 관계를 이루며, 따라서 内部에 위치한 心은 臟으로 배속하고 상대적으로 外部에 위치한 心包는 腑로 배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心과 心包的 해부학적인 위치와 생리 기능을 고려한 分類로 볼 수 있다.

(2) 心包的 위치는 心臟이 위치한 胸中이며, 手厥陰心包經은 胸中에서 外部로 나아가는 經絡이라고 하였다.

(3) 心臟과의 관계로 인하여 腑에 배속하지만 실질적인 속성과 氣는 臟에 가깝다. 그래서 '非臟非腑'의 특성을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 2) 心包的 생리적 기능과 특징.

(1) 心臟의 격막이 되어 君主之官인 心臟을 보호하고, 心君을 대신하여 다른 臟腑에 명령을 전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心은 입금이 無爲의 정치를 행하는 것처럼 직접 움직이지 않으며 心包가 대신하여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心包를 매우 중시하였고, 君火와 相火로 대비시켰다.

(2) 相火를 가지고 있으며, 腎臟에서 火氣를 취하여 완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心包는 相火에 해당하기 때문에 心과 함께 脾胃와 母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胃土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 心과 腎의 交通은 心包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肺와 腎의 氣를 취하여 心液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4) 膀胱의 기화작용을 통한 小便배출의 원동력은 心包的 火氣라고 하였다.

(5) 心包는 肝과 같은 厥陰風木의 특성을 가지는데, 心의 명령을 바로 수행해야 하는 생리적 속성이 厥陰風木의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心包는 쉽게 逆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 3) 心包와 三焦, 명문과의 관계

(1) 《難經 二十五難》의 설을 인용하여 三焦와

心包는 모두 無形의 臟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相合된다고 하였다.

(2) 相合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三焦가 相合이 되는 臟腑가 없고, 心包 또한 짝을 이루는 臟腑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三焦와 相合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心包는 속성이 臟과 같으면서 三焦보다 心臟에 가까운 위치이고, 三焦는 상대적으로 외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心包는 裏가 되고 三焦는 表가 된다고 보았다.

(3) 心包的 명령은 心의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臟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相合관계인 三焦가 表의 위치에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4) 心包와 三焦, 命門은 모두 같은 相火의 氣가 있으며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해부학적인 위치에 의해 表裏로 구분되지만 그 속의 기운은 모두 같으며, 특히 三焦는 心包的 氣에 의지해서 上中下로 소통하기 때문에 항상 心包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心包的 病理와 治療법

(1) 心包火는 相火이며, 心火에 비해 상대적으로 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相克관계인 肺와 相生 관계인 胃에 미치는 병리적인 영향이 더 크고 해롭다고 하였다.

(2) 心包的 火는 心의 陽氣와 腎의 陰氣를 모두 얻어서 성립되기 때문에 腎水가 부족하면 心火보다 心包火가 먼저 건조해지기 쉽다. 心包火가 건조해지면 胃土를 지나치게 왕성하게 하여 病理적인 상태로 만든다. 이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根本原因이 되는 腎水의 부족을 보충해야 한다.

(3) 心包的 火는 相火이고 心包가 心を 둘러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瀉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직접 瀉하는 것보다는 모자관계인 肝木을 瀉하는 治療법을 제시하였는데 肝을 瀉하는 치료법은 心火와 心包火의 病理를 모두 치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4) 心包火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크게 腎水를 자양하는 방법과 肝木을 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완만하고 오래된 병세를 치료하고 후자는 급박한 병세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5) 心臟의 병은 心包를 다스려야 하고, 위장의 虛證도 心包를 같이 다스려야 한다.

(6) 心과 腎의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發生한 疾患을 治療할 때에도 心包를 고려해야 한다.

##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09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參考文獻

### <논문>

1. 김정규, 윤창열. 陳士鐸의 생애와 醫學사상.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대전. 1994년.
2. 이병직. 陳士鐸의 臟腑五行理論과 임상응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석사논문. 2004년 4월.
3. 최종필. 陳士鐸의 命門說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석사논문. 2006년 2월.
4. 劉長華. 陳士鐸醫學學術思想研究. 陳士鐸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 <단행본>

1. 陳士鐸 原著.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2. 岐伯天師 傳. 陳士鐸 述. 노영균 編譯. 外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4년.
3. 陳士鐸 述. 노영균 編譯. 新編 辨證奇聞. 대전. 주민출판사. 2005년.
4. 배오성 譯. 國譯 石室秘錄. 서울. 서원당. 2000년.
5. 김달호 編譯. 補注注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년.
6. 김달호 編譯. 補注注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년.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炆教授華甲紀念素問研究集成. 대구. 금성인쇄사. 2001년 8월.
8.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庸齋朴炆教授停年退任

紀念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년 9월.

9. 滑壽 原註.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編譯.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년.
10. 張介賓 著. 이남구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06년.
11. 圖書集成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86년.
12. 王新華 編著. 금경수 譯釋. 歷代醫論選(臟腑學說篇). 서울. 대성문화사. 1996년.
13. 성백호 譯註. 懸吐完譯 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년.
14. 陳士鐸.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년.

### <사전>

1.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中國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년.
2. 謝觀 編著. 新編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년.
3.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東亞 漢韓中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97년.
4. 김원중 편저. 虛辭辭典. 서울. 현암사. 1996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찬실 편. 中韓辭典. 서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년.